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교회적용

한 숙 자* 박 경 옥**

국문초록

교회의 코이노이아와 살롬의 개념은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적당한 기관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관점에서의 고부관계를 살펴보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은 5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결혼 이주여성과 그들의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한국가족의 위계구조, 서로의 문화 차이와 이해부족에서 오는 고부갈등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고부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부관계의 회복시도에 관한 것이다. 성경 룯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며느리 룯은 인종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초월한 고부관계를 보여준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성경 원리에 따라서 고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나누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심단어 : 다문화상담,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코이노이아, 나오미와 룯

-
- 논문 투고일: 2010년 03월 31일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2일
- *한영신학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 국가임을 자부하던 한국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민족과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¹⁾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²⁾

다문화 가족이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직업 훈련과 생계형 취업 알선, 육아 일시 보호 등의 정책적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³⁾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적응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상담적 접근은 활발하지 못하다. 여러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이 가족간의 의사소통문제,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사회적 편견과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중 남편이 일터로 나간 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고부관계에 대한 상담은 고부관계가 고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전체 그리고 자녀양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 및 친인척과의 갈등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전통적인 며느리로서의 의무 강조, 잦은 간섭 등을 겪고 있으며 지역사

-
- 1) 통계청(2007)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하게 된 외국여성을 말한다. 통계청(2007)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1%를 차지하고, 결혼이주여성은 12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 3) 「한국성결신문」,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2009. 9. 26.
 - 4)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8), 5.

회 구성원들의 편견,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크다고 보고한다.⁵⁾ 또한 결혼이주 여성들은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집 밖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인 가족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 인종, 성, 나이, 외모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시어머니로서는 생소한 외국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 가족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크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보건관련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한 자조모임에 참여시키면 유해한 정보를 얻어 가정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시어머니와 가족에게 고부관계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방법으로 집단심리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나 자조집단과 같은 동료상담, 그리고 부부, 부모 자녀관계 등을 포함한 가족 상담이 권장되고 있다.⁶⁾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한국문화와 생활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 가족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함께 수용하려는 쌍방적인 적응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리적인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의 코이노이아와, 그리고 살롬의 개념은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편견 없이 도울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 초점을 맞춰 고부관계의 심리적인 이해와 향상을 도우며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살펴보고, 둘째,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탐색하며, 셋째,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과 상담방법을 모색함으로써

5)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 연구논총」 제23집(2008): 44.

6)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45-47.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정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한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⁷⁾

외국인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한 가정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근로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이주근로자 간에 국내에 들어온 후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이주한 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들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력에서도 이주근로자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그들의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어머니 가정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여성의 상품화,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신부 부족을 외국 여성으로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려는 국제결혼 중

7) 최충옥외 10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9), 331-337.

개업체 등의 역할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새터민 가정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가정을 말한다. 새터민 가정의 자녀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 및 청소년과 한국에서 출생한 새터민의 자녀를 말한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새터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2.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문제

‘러브인 아시아’⁸⁾ 프로그램에서 태국인 가비니씨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이나 그 이주민이 이루는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혼이주민 중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낮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향수, 경제적 빈곤과 그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고된 노동,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외모 차이 또는 한국어 구사 미숙 등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에 시달린다.

외국인 아내들은 태국인 가비니씨가 말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국인 친구나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화요금에 많이 나온다고 구박을 받는 경우와 모국에 돈만 부치려한다고 핀잔을 받는 경우가 많아, 남편의 친척이나 시댁, 주변 사람들, 관련기관의 도움은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무언가 배우기보다는 아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것으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8) KBS 1, “러브인 아시아”, 2009, 9, 29.

9)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8.

1) 다문화 가정의 고부를 중심한 가족관계

(1)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외국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여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 시어머니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고부관계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핵가족화 되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과거처럼 관여할 일상적인 관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¹⁰⁾ 그러나 다문화가정에서는 며느리가 한국의 언어와 사회의 일상적인 상황과 식습관을 모르며, 대체적으로 나이 어린 신부가 많아 가정사에 대한 상황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연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간섭할 경우가 많게 되어 자동적으로 갈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혼이주여성들도 이를 하나의 갈등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¹¹⁾

조한숙은 ‘농촌노인과 외국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¹²⁾에서 외국인며느리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정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농촌여성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부관계만족도는 신뢰만족, 공감만족, 의사소통만족의 세 요인으로,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대인관계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차이적응 스트레스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시어머니의 대인관계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친정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고부관계만족도 중 신뢰만족이 높을수록 외국인며느리와의 대인관계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부간의 신뢰감이 높으면 대인 관계에 적응하는 부담감이 줄어드

10) 박경옥, “고부갈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1999), 10.

11)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44.

12) 조한숙, “농촌노인과 외국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09), 75-84.

는 경향을 보였다. 시어머니의 문화차이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시어머니가 느끼는 외국인며느리와의 신뢰만족도와 공감의 정도가 낮을수록 서로간의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차이 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며느리의 대인관계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외국인며느리의 본국친구가 국내에 있을수록, 친정대비 현재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신뢰만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며느리의 문화차이적응 스트레스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정도가 낮을수록, 한국어 읽기능력이 낮을수록, 신뢰만족이 낮을수록 문화차이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숙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농촌여성노인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쌍방향문화의 소통증진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주위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담과 같은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¹³⁾ 이러한 제안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고부관계의 갈등요인

다문화가정의 시부모세대는 대부분 단일민족의식을 중요시하고 가부장적 위계를 중시하며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뿌리 깊은 관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시부모 세대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총각 아들을 위해 외국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낮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며느리의 외로움과 향수, 경제적 빈곤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식습관의 다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모 차이 등을 시부모세대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도 고부가 문화충돌과 갈등을 느끼게

13) 조한숙, “농촌노인과 외국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90.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에서 볼 수 있다. 국제 결혼하는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이들을 보는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선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은 주변의 부러움과 함께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만, 제3세계나 후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차별적이고 냉소적이다.¹⁴⁾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데니즌과 마지즌의 기준으로 나뉘기도 한다. ‘데니즌’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선진국에서 온 이주자들이며 ‘마지즌’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주변화 된 범주인을 말하는데,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들은 대부분 ‘마지즌’의 문화에 속하는 나라에서 왔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에 따라 ‘데니즌’과 ‘마지즌’¹⁵⁾에 대한 상극적인 반응은 상담에 있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다문화가정의 신부감을 고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광고를 하는 행위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남성이 한 시간 안에 20~30명, 많으면 300여명의 외국 여성 중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부감을 결정하는 것이 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매방법이라 한다. 이는 배우자 선택 기준이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이 아니라 외모만으로 결혼상대를 결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남성으로 하여금 아내를 인격적인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의 일부로 여기는 인격비하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기고 있다. 요약컨대, 결혼과정상의 문제, 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와 중개절차,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사회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 한주희,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서의 경험: 데니즌(Denizen)의 이주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연세학술논집」 제43권 (2006): 105-108.

15) 한주희,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서의 경험: 데니즌(Denizen)의 이주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113-115.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족관계는 시부모, 남편, 형제, 친척들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차 의사소통이 안 되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나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두고 남편 하나만을 보고 홀로 온 입장이므로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이해하여야 하고, 남편을 비롯하여 시부모와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생활 전반적인 일상들을 익히도록 노력하면 서로 가족으로 빨리 적응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다문화가정 부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문화배경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인정이나 지원을 적용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지각하고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중재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요구하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남편들은 육아나 자녀교육은 엄마의 몫으로 생각하고, 다만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었다.¹⁶⁾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랄뿐,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밝히고 있다.¹⁷⁾

한국인 남편들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외국인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다문화부부는 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볼 때 남편의 노력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16)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209.

17)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2008), 16.

는 이러한 부부간의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폭언, 인격모독 등의 문제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의 이혼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총 이혼 중 국제결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의 7.1%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기간이 4년 이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79.9%로 부부간의 초기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따라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부성장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을 통한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화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어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은 의사소통의 불편함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를 성급히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한국 문화의 기준으로만 옳다, 그러다를 강조하면 다문화가정의 아내들은 혼란에 빠지며 이해받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마음을 닫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전에는 결혼 전의 자국의 문화가 기준이었다.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하여 한 달 단위나 주 단위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면 배우자에게 이해받음을 느낄 수 있어 부부로의 공감이 커지리라 본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부부로의 관계성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모와의 언어소통문제, 그리고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볼 수 있다. '미등록 근로자'¹⁹⁾의 신분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미취학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부적응의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18)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19) 최충욱외 10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340-341.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긍정적인 부분도 지닐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조력이 뛰어날 수 있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아동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요소인 가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들은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육아를 분담하면 아이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글로벌한 사람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정의 여러 갈등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맺은 가족관계와는 현재 갈등이 있으나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살펴보면 갈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²⁰⁾

3.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

현대화는 전통적 공동체와 같은 전통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사회 통제 수단도 아울러 사라지게 되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외부인에게 대처하는 방식도 혼란스럽게 되었다. Peter Berger는 이러한 심리상태를 “가정을 상실한 마음(homeless mind)”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의미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20) 이태옥,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06), 62-68.

새로운 가정과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²¹⁾ 즉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양극단의 중간쯤에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통사회에 있던 교회와 같은 기존조직의 공동체를 연상하게 한다.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은 법인체, 정부 기관의 관료주의제 등의 "조직망(networking)"이다. 조직망은 이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불안정하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공동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결여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현실과 소속감이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현대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환경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공동체와 현대사회구조를 코이노니아와 샬롬이라는 성경적 이상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1) 교회의 코이노니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와 에베소서 2장 19절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의 일차적인 적용은 교회에서 하고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는 헬라어로서 함께 나눈다는 교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형태적으로 교회는 가족과 같은데 이는 모든 교회구성원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가정들에게 있어 하나의 가족이며 고립된 핵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정체감과 지원의 원천인 것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로 믿음을 촉진하는 구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회는 배타성의 함정과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만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탈피해야 하며 과부,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 독신, 결손가족을 환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자신의 나라를 떠난 다문화가정에 대하

21) Jack Balswick & Judice Balswick, *Family: Bibl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amily*, 서울대학교사범대학상담교육연구실 역, 『가족 : 현대가정의 성경적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사범대학상담교육연구실, 2002), 304 에서 재인용.

여도 동일한 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세워 볼 수 있다.

첫째, 교회는 다양한 사회계층, 인종, 연령, 배경, 종교적 경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진정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이나 유사한 이미지에 근거한 연합을 피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구성원들이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는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 역할을 재창조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은 기능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약자로 간주되어오던 독신이나 여성, 어린이, 노인, 가난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은사를 발휘하며 능력부여과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 고착된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가족이 되는 원칙에 의하여 볼 때,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로 차별하여 볼 수 없음이 명백해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며 교회는 서로 코이노니아하기를 가르치고 있다.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교회는 소집단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알고 돌봐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구약의 Shalom

Jack Balswick과 Judice Balswick은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기관을 갖고 있으며 이 각각의 제도적 구조는 일련의 통합된 규범에 의해 규칙화된 역할과 복잡한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가족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를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약에서의 샬롬의 개념은 이러한 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샬롬은 일반적으로 “평화”란 말로 번역되는데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샬롬은 평화 뿐 아니라 정의와 올

바름의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를 만든다. 그러한 사회는 이사야서 11장 6-8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살롬은 평화와 정의가 함께 있는 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살롬이 있으려면 만성적인 실업과 극빈자에 대한 억압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난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식처, 의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일이지는 하지만 가난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조건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살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롬으로 특징 지워진 사회는 사람들을 왜곡되게 다루지 않고, 그들에게 잘못된 권한을 부여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살롬은 가족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을 희생하고자도 경제제도가 우선적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살롬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업이 계속되고 그들의 생계를 꾸릴 근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살롬은 존재하지 않는다. 억압과 차별로 소수사람들이 직업을 얻을 수 없을 때 살롬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매일저녁의 교회활동을 위해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살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예를 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회구조는 가족생활에 해를 끼칠 때 살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²²⁾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이사야서 11장 6-8절의 Shalom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의 희망이 가족생활에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는

22) Balswick & Balswick, *Family*, 328-332.

것으로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에 기초가 되는 언약적 사랑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행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 적절한 질서를 조성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심²³⁾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은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 해도 진정한 살림과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하는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이다.

2) 고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인 고부관계의 전형적인 모델로 랫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롯을 들 수 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지방에서 모압 여인 롯을 며느리로 맞이 하였으나 나오미는 모압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슬픔과 위기를 맞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때 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²⁴⁾ 라는 진심어린 고백을 한다. 나오미는 며느리 롯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모압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지만 고부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며 미래의 삶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은 위기에 처한 고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랫기에 나타난 타민족에 대한 수용과 존중성, 나오미와 롯이 행한 연대정신, 보아스가 롯에게 한 나그네 보호”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추어야 한

23) 누가복음 10장 25-27절.

24) 랫기 1장 16절.

다”²⁵⁾고 제안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향상을 위한 성경적인 접근과 일치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상담현장에서 나오미와 룯의 이야기를 고부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한 가지 조심해야 점은 룯과 나오미와의 관계와 사랑을 모든 고부관계에 일관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²⁶⁾ 고부갈등으로 상담현장에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제시하여 교훈삼게 할 모델인 것은 틀림없지만 내담자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에 상담자의 세심한 주의와 분별이 필요하다. 룯과 나오미가 인용되면서 지속적인 시어머니의 비합리적 행동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일방적 효나 순종이 끝없이 강요되거나 며느리의 불손함과 방자함도 시어머니의 일방적 수용과 인내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도 수용하고 소화해낼 수 없는 지나친 효도나 용서를 종교적으로 강요받을 때 내담자들은 룯과 나오미처럼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이차적인 상처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아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려 자아실현이 아닌 자기부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의 대등한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²⁷⁾ 목적이 자아실현인 일반상담만으로는 전인적인 인간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인종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 등을 초월하여 보여주고 있는 룯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룯의 관계를 좋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나오미와 룯의 관계는 사람을 사랑하

25) 「한국성결신문」,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의 외투를 벗자”, 2009. 10. 24.

26) 황혜선,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고부갈등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5), 54-55.

27) Rollant Antholl, *Psychotherapy & Biblical Counseling*,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도서출판 CLP, 2005), 135.

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 근거하여 함께 친숙함을 느끼고 나누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 고부관계프로그램의 실제

연구자는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²⁸⁾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만들어 목회현장에서 10년 동안 실행하여 왔다. 이를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을 맞이하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심리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제도,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와 심리적 이해부족에서 오는 고부갈등의 원인들을 이해하며²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부관계의 회복을 시도한다.

(1)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다문화가정의 고부, 가족 그리고 교회공동체가 전통적 가부장 제도와 효 사상, 조상 숭배 사상 등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으로 주신 구원의 삶을 다문화가정의 고부와 가족,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되어,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다문화가정과 이웃, 나아가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살림과 교회공동체의 사랑의 관계 회복을 실천하는데 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Murray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5);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2006), 171-209.

29) 박정숙, “고부갈등원인에 대한 성경적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 30-35.

〈표 1〉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 회기 | 주 제 | 내 용 | Quite Time | Workshop |
|----|-----------------------|---|------------|-----------------------|
| 1 | 다문화가정과 전통사회 문화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고부관계의 성공사례 소개한다. • 다문화가정과 전통 사회의 고부문제를 이해한다. • 변화하는 시대의 고부갈등을 이해한다. | 오후 2:19 | 자기소개 |
| 2 | 고부관계의 시작 -성경적 결혼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의 결혼관을 직시하는 통찰력 키운다. • 며느리 역할, 시어머니 역할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게 한다 | 창 2:24 | 각자 모국의 결혼풍습 나누기 |
| 3 | 고부의 심리적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고부가 인간의 심리변화를 이해하며 신혼기와 중·노년기의 고부입장을 서로 이해하도록 한다 • 고부 관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룻기 1:16 | 인생곡선 그리기 |
| 4 | 고부갈등 회복의 남편의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 아내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돕는다. | 오후 5:25 | 남편에게 편지쓰기 |
| 5 | 다문화가정 고부의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과 고부의 관계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고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익힌다. | 미가 6:8 | 수료식 |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각 회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회기: 다문화가정과 전통사회 문화이해

1회기의 목표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며 직면하게 되는 인종, 성, 나이, 장애, 외모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지한다. 또한 전통사

회로 이어져 오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한다. 그리고 고부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부갈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1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집단원간의 관계형성과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이해를 우선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고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회기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을 집단원들과 나눈다. 둘째, 개회선언과 동시에 서약서 작성으로 집단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고취시켜 결석이 없도록 규칙을 제시한다. 셋째,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 조별 나눔과 조이름 및 조장 선정 등으로 집단원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참여 동기를 재인식시킨다.

1회기의 전개단계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정 고부관계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주제강의의 이해를 높힐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여 함께 시청하며 공감과 이해를 높인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전통 사회의 고부문제와 변화하는 시대의 고부갈등에 대해 강의한다. 셋째, Quite Time에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1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며 1회기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용할 부분을 인지시킨다. 둘째, 다음회기까지 과제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결혼이야기 적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② 2회기: 고부관계의 시작 - 성경적 결혼이해

2회기의 목표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바르게 이해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결혼관을 수정, 보완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다.

2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가정의 고부 문제를 이해하며 인지하도록 돕는다. 첫째, 지난 일상 나누기로서 1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집단구성원들이 설명하게 하며 지난 일주일의 일상의 변화를 나누며 2회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둘째, 조장을 통하여 1회기 과제인 '자신의 결혼이야기 적어오기'를 확인함으로써 과제를 점검한다.

2회기의 전개단계에서는 첫째, 고부는 1회기 과제인 '자신의 결혼이야기

적어오기' 를 나누며, 시택과 친정의 결혼과 가족문화를 비교해 보며 나눈다. 둘째, 주제강의를 통해 성경적 결혼을 이해하며, 고부자신들의 결혼관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키운다. 며느리 역할, 시어머니 역할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게 한다. 셋째, Quite Time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2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째, 2회기를 요약하고 적용할 부분을 인지시킨다. 둘째, 2회기 과제를 부여한다. 제목은 '결혼생활 중에 좋았던 점을 적어오기' 이다.

③ 3회기: 고부의 심리적 이해

3회기의 목표는 신혼기인 며느리의 심리와 중·노년기인 시어머니의 심리를 고부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고부관계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한다.

3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첫째, 지난 일상 나누기로서, 2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집단구성원들에게 상기 시키며, 지난 일주일의 일상의 변화를 나누며 3회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둘째, 2회기 과제인 '결혼생활 중에 좋았던 점을 적어오기' 를 조장을 통하여 확인하며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조별로 나누게 한다.

3회기의 전개단계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정 고부의 신혼기와 중·노년기의 고부입장을 서로 이해하도록 하며, 고부 관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둘째, Quite Time에서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3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째, 3회기의 다문화가정 고부의 심리적 특성을 요약하고 적용할 부분을 인지시킨다. 둘째, '남편에게 편지쓰기' 의 과제를 부여한다.

④ 4회기: 고부갈등 회복의 남편의 역할

4회기의 목표는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는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부부중심의 사랑의 관계를 굳게 하여 부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효를 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4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첫째, 지난 일상 나누기로서 3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집단구성원들이 설명하게 하며, 지난 일주일의 일상의 변화를 나누며 4회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둘째, 과제검토로서 조장을 통하여 ‘남편에게 편지쓰기’인 3회기 과제를 확인하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 둔다.

4회기의 전개단계에서는 첫째, 3회기 과제인 ‘남편에게 편지쓰기’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편지를 낭송하게 하여 함께 나누고, 각자의 가정의 3세대 가계도를 그려보게 한다. 둘째,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삼각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고부의 탈삼각관계를 시도하며, 남편의 머리뿔의 역할과 아내의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Quite Time에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4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째, 4회기를 요약하여 가족 간에 내려오던 갈등의 문제를 나눈다. 둘째, 4회기의 과제는 다음시간이 수료하는 날 임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용서와 감사의 편지쓰기’를 고부에게 쓰게 한다.

⑤ 5회기: 다문화가정 고부의 의사소통

5회기의 목표는 다문화가정의 고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의사소통기술을 이해한다. 다문화가정의 고부는 상대방의 의사소통 기술을 인지하여 서로 이해하며 배려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한다.

5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첫째, 4회기에 다루었던 내용을 집단구성원들이 설명하게 하며, 지난 일주일의 일상의 변화를 나누며 5회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둘째, 과제였던 ‘용서와 감사의 편지쓰기’를 조장을 통하여 확인한다.

5회기의 전개단계에서는 첫째, 의사소통 기술 중에 ‘나 전달법’을 들씩 짝지어 연습한다. 둘째, 하나님과 고부의 관계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고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익힌다. 셋째, Quite Time에서는 미가 6장 8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5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 회기를 통해 경험한 것과 그 의미를 나누고 수료식을 시행한다. 다음기의 모집대상을 염두에 두며, 자신의 고부관계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짐하며 파송한다.

이상의 회기를 시행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 고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대상에 따라 의사소통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행할 그룹에 적합하도록 쉽고,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의 실시방법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고부가 참여하기 좋은 시간을 충분히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일에 실시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의 상황에 따라 주중에 적당한 요일을 정하여 주1회 모임으로 한다. 매 회기는 2시간 30분으로 5회기 모임으로 실시한다. 또는 주일에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시간 배정이라고 본다. 매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5주간에 걸친 5회기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이 회복되며 고부관계가 전인격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계획한다.

2) 교회에서의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적용

연구자는 “고부갈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10여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적용해 왔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체면문화가 교회 안에도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참여자들이 “고부갈등”이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적용할 때 그 내용은 같으나 프로그램의 명칭만 “여성성장프로그램”, “나오미사랑교실”, 또는 “가정행복학교” 등으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교회에서 1년에 1회기 시행하면 매년 새로운 기수가 형성되며 기수마다 기수모임을 둘 수 있다. 기수모임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료 후의 성장 촉진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수료자가 자신의 변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듬해의 참여자를 모아오는 적극성을 보이게 되고,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역동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회에서 적용할 때 다문화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자를 두어도 무방하다.

둘째, 다문화가정상담자는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전에,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전정보가 실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매스컴의 보도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모두 피해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인 문제아 혹은 부적응자가 아닌 자아실현경향을 지닌 충분히 기능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키워주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생활에서 적용하는 과정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위계적인 가족구조라는 외부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낯선 나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은 적응능력을 비롯한 많은 내적자원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성장 발달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확인하고 서로의 기대 차이를 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상담자는 다문

30)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227-228.

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기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가운데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을 동료상담자로 훈련시켜 후배 결혼이주여성들을 조력하는 방법이나 집단의 리더 혹은 보조리더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상담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서로간의 정보공유는 공감대 형성과 소속감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인정이나 지원을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지각하였고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요구하거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에는 남편의 역할훈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도 상담자의 지속적인 가정방문, 즉 찾아가는 상담은 시댁 가족들이 며느리를 홀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기능을 한다.³¹⁾

여덟째, 한국에서 서양중심의 다문화상담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상황과 가족기능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과 연구를 근거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

III. 닫는 글

한국은 전통적으로 고부관계의 어려움을 '고부갈등'으로 표현하였다. '고부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중에 대표적인 갈등 중의 하나로, 해결될 수

31)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226-233.

없는 어려운 난제로 보아 왔었다. 그러나 6.25 전쟁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급진적인 경제발전은 사회구조를 바꾸었고, 가족형태도 핵가족으로 변하며 '고부갈등'의 양상도 바뀌었다. 전통적인 고부갈등 대신에 사위장모갈등이 두각을 나타내는가 싶더니, 다문화가정의 고부갈등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과 함께 다루기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고부갈등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에 따라 외국인을 대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사회적 통제력이 없어짐에 따라 과거에 공동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결여되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는 성경적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과 교회의 코이노니아와 구약의 살림에 근거한 인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상담적 관점으로 교회가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교회가 도입하여 실행하기에 적합한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데니즌 '과' 마지즌 '에 대해 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에 따른 인간이해 관점으로는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 향상을 도울 수 없다. 인간이해에 있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아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려 자아실현이 아닌 자기부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의 대등한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목적이 자아실현인 일반상담만으로는 전인적인 인간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에서는 성경 룯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룯의 고부관계를 모델로 제시하였고, 이는 다문화 사회를 교회가 연결하는 기독교상담이나 목회상담의 접촉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적용해보고 그 내용의 타당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2008.
- 박경옥. “고부갈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1999.
- 박정숙. “고부갈등원인에 대한 성경적 대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
-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23집 (2008): 41-51.
-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2009.
-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 이태옥.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06.
- 조한숙. “농촌노인과 외국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9.
- 최충옥 외 10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9.
- 한주희.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서의 경험: 데니즌(Denizen)의 이주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연세학술논집」 제43권(2006): 102-121.
- 황혜선.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고부갈등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5.
- Antholl, Rollant. *Psychotherapy & Biblical Counseling*.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도서출판 CLP, 2005.
- Balswick, Jack & Balswick, Judice. *Family: Bibl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amily*. 서울대학교사범대학상담교육연구실 역. 『가족 : 현대가정의 성경적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사범대학상담교육연구실, 2002.
- Bowen, Murray.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5.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2007). 국제결혼현황.

「한국성결신문」.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의 외투를 벗자”. 2009. 10. 24.

「한국성결신문」.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2009. 09. 26.

KBS 1. “러브인 아시아”, 2009. 09. 29.

【 Abstract 】

The Application of a Program for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f
a Multicultural Family to Church

Sook Ja Han & Kyung Ok Park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church, with its concept of koinonia and shalom, seems to be the right institution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For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f a multicultural fami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multicultural families, closely look at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and propose a program to better the relationship applicable to the church.

The program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f a multicultural family consists of five sessions and is organized in such a way to solve psychological problems and day-to-day difficulties centering around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mothers-in-law. The program focuses on comprehending the Korean family hierarch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ypically stemm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understanding, emphasiz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s directed by God. Naomi, mother-in-law, and Ruth, alien daughter-in-law, in the book of Ruth exemplify the relationship transcending different cultures among races and nations. According to the biblical principles based on this kind of relationship, the program places a focus on helping those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respect each other without bias and lead a full life as Christians.

Key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f a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migrant women, koinonia, Naomi & Ruth